

NBA 케빈 듀란트, 골든스테이트 이적

전 시즌 평균 28점 이상 득점 FA최대어 영입 슈퍼팀 만들어

케빈 듀란트가 골든 스테이트로 동지를 옮기며 전 세계 팬들을 놀라게 했다. 오클라호마시티 썬더에서 올 NBA 퍼스트팀에만 다섯 차례 선정되고 2013-14 시즌에는 시즌 MVP에 선정되는 등 영광의 시대를 누리던 듀란트는 오클라호마 시티 역대 최고의 프랜차이즈 스타가 될 것이 유력했다.

하지만 그는 끝내 골든스테이트로 이적하며 정든 고향팀과의 작별을 고했다. 듀란트가 이적한 골든스테이트는 지난 시즌 73승 9패라는 NBA 역사상 단일 시즌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NBA 역사상 70승 이상을 거둔 팀은 단 두 팀에 불과하다.

역대 1위의 정규리그 성적을 기록했지만 르브론 제임스의 투혼에 밀려 준우승을 차지한 골든스테이트는 FA최대어로 꼽힌 듀란트를 영입하며 전무후무한 슈퍼팀을 만들었다.

듀란트는 직전 시즌에 평균 28점 이상을 득점하고도 팀을 옮긴 역대 여덟 번째 선수가 됐다.

하물며 지난 30년 동안에는 듀란트까지 포함해 단 세 번밖에 없었다.

트레이시 맥그레이디(2004), 제임스 (2010) 그리고 듀란트(2016)가 전부다. 직전 시즌 득점 12위 안에 들었던 선수들이 뭉친 경우는 흔치 않다.

보스턴 셀틱스, 마이애미, 그리고 골든스테이트다.

더욱 무서운 점은 현재 골든스테이트의 빅3로 불리는 데이먼드 그린, 스테판 커리, 클레이 톰슨과 듀란트는 모두 뛰어난 슈팅력을 갖추고 있어 상대하는 팀 입장에서는 곤란할 수 밖에 없다.

완벽에 가까운 모션오웬스로 무시무시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골든스테이트지만 아이솔레이션 옵션은 전무했다. 듀란트는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완전체로 거듭난 골든스테이트 같지만 속단 하기는 이르다.

제임스와 웨이드 부부도 2011년 결합 직후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다.

앞으로 골든스테이트의 과거는 적은 금액으로 어떠한 베테랑 선수를 모집 할 수 있을지가 문제로 대두된다.

데이비드 웨스트와 같은 선수들이 골든스테이트로 향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 외 이적시장에 남아 있는 선수들 모두 그 옛날 골드러쉬가 일어나던 시대처럼 샌프란시스코로 향할 여지는 충분히 차고 넘친다. 골밑 보강만 잘 이뤄진다면, 정말 흠 잡을 곳이 없는 라인업이 구축되



오클라호마시티 썬더에서 올 NBA 퍼스트팀에만 다섯 차례 선정되고 2013-14 시즌에는 시즌 MVP에 선정되는 등 영광의 시대를 누리던 케빈 듀란트

며, 이퀄라이터가 있는 만큼 골든스테이트의 스몰라인업은 이전 시즌보다 100배 더 좋아진 효율과 위력을 과시할 것이 유력하다.

최강의 전력으로 꼽히는 골든스테이트가 다음 시즌 NBA왕좌를 차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민근 기자

SK 와이번스 최승준 KBO리그 개인 첫 월간 MVP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의 거포 최승준(28)이 개인 첫 KBO 리그 월간 MVP로 선정됐다.

KBO는 5일 SK의 최승준이 KBO리그 출입기자단 투표에서 유효표 28표 중 17표(60.7%)를 얻으며 2위 두산 마이클 보우덴(10표)을 제치고 '2016 타이타늄 KBO 리그 6월 MVP'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데뷔 시즌인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통산 2개의 홈런을 기록한 최승준은 올 시즌 불오른 타격감을 선보이며 6월 한 달간 무려 11개의 홈런을 쏘아 올렸다.

리그 타자 중에는 가장 높은 0.783의 장타율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 28일 수원 kt전에서 개인통산 처음으로 3연타석 홈런을 기록하는 등 올 시즌 팀 내 홈런 공동 1위이자 리그 전체 홈런 순위 공동 4위를 달리며 SK의 중심타자로 맹활약하고 있다.

6월 월간 MVP인 최승준에게는 상금 200만원이 수여된다. KBO는 이날 문학구장에서 열리는 한화와의 경기에 앞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퍼거슨 전 감독, 맨유 떠나는 깁스 선택 존중

알렉스 퍼거슨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 팀을 떠나기로 결정한 라이언 깁스의 선택을 지지했다.

퍼거슨 감독은 5일(한국시간)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깁스가 홀로 서야할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깁스는 지난 2일 맨유와의 20년 인연에 마침표를 찍었다. 수석코치 계약이 1년 남았지만 조제 무리뉴 감독의 합류로 입지가 애매해지자 과감히 새 도전을 선택했다.

퍼거슨 감독은 "깁스는 팀을 맡을 준비가 됐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며 감독으로서의 깁스를 응원했다. 다만 퍼거슨 감독은 "매년 감독을 갈아치우는 곳을 맡아 스스로를 망치고 싶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를 조언했다.

깁스가 떠난 것에 아쉬움을 드러낸 퍼거슨 감독은 무리뉴 감독의 선택 또한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옹호했다.

퍼거슨 감독은 "내가 맨유에 처음 왔을 때 아이치 녹스와 함께 왔다. 나는 그를 100% 신뢰했다"면서 무리뉴 감독이 자신과 함께 했던 수석코치를 데려온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민근 기자

혈통 위조 첼시 리 영구제명 · 소속팀 하나은행 팀 순위 말소

선수 드래프트 최하위 순위 부여 · 해외선수등록규정 전격 폐지 장승철 구단주 · 박종천 감독 사임...연맹 책임론 다음주 논의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이 혈통 위조로 농구계를 떠들썩하게 한 첼시 리(27)를 영구제명하고, 소속팀이었던 부천 KEB하나은행의 지난 시즌 팀 순위를 말소하기로 했다.

WKBL과 6개 구단 이사들은 5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연맹 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사회는 일단 첼시 리의 지난 시즌 기록과 시상상을 모두 취소하고, 영구제명하기로 했다.

첼시 리의 에이전트 2명에 대해서 무기한 활동 정지 처분을 내렸다.

소속팀이었던 하나은행은 지난 시즌 정규리그 2위와 챔피언결정전 준우승 성적을 말소하고, 준우승 시상금 총 4500만원(플레이오프 3000만원·정규리그 1500만원)도 환수하기로 의결을 모

았다.

또 오는 2016~2017시즌 외국인선수와 국내선수 드래프트에서 최하위인 6순위와 12순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동시에 논란을 부른 해외선수등록규정은 전격 폐지하기로 했다.

여자프로농구는 부모나 조부모가 한국 국적자일 경우, 국내 선수와 같은 신분으로 뛸 수 있도록 하는 해외동포선수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첼시 리 측이 이 규정의 허점을 노려 서류를 조작해 벌어진 일이다.

하나은행은 물의를 일으킨데 사과의 뜻을 전하며 장승철 구단주와 박종천 감독의 사임을 알렸다.

한중훈 사무국장은 감봉 조치하기로 했다.

또 첼시 리와 첼시 리의 에이전트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강력하게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조성남 하나은행 단장은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 총재는 "있었던 안 된 일로 인해 상당한 실망감을 드러 사과드린다.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맹 책임론에 대해서 "다음 주 재정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시즌 해외동포선수 자격으로 하나은행에서 뛴 첼시 리는 신인왕을 비롯해 개인상 6개를 수상했고, 소속팀 하나은행의 준우승을 이끌었다.

그러나 시즌 후, 특별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류 조작이 검출을 통해 밝혀졌다.

/김민근 기자



중국 프로축구, 발렌시아 네그레도 영입 나서

최근 브라질 국가대표 공격수 헬크(상하이 상강)를 품어안은 중국 프로축구 슈퍼리그가 이번에는 스페인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알바로 네그레도(31·발렌시아)를 노리고 있다.

스페인 축구전문매체 마르카는 5일(한국시간) "유망한 재능있는 선수들을 향한 중국 축구의 유혹이 계속되고 있다"며 "광저우 에버그린데가 네그레도의 영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네그레도는 이미 한 차례 광저우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광저우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액수를 올려 새롭게 배팅했다.

발렌시아 쪽에 2400만 유로(약 308억원)를 이적료로 제시했고, 네그레도에게는 연봉 550만 유로를 제안했다.

발렌시아는 광저우의 제안에 반색하고 있다. 마르카에 따르면 이미 네그레도는 팀에서 핵심선수 및 임의전력으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광저우의 물량공세에도 네그레도는 발렌시아 잔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비아, 맨체스터 시티 등에서 활약했던 네그레도는 2014~2015시즌부터 발렌시아에서 활약 중이다. 지난 시즌에는 정규리그 25경기에서 5골을 넣는데 그쳤다.

/김민근 기자

위대한 체 · 인 · 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감동받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